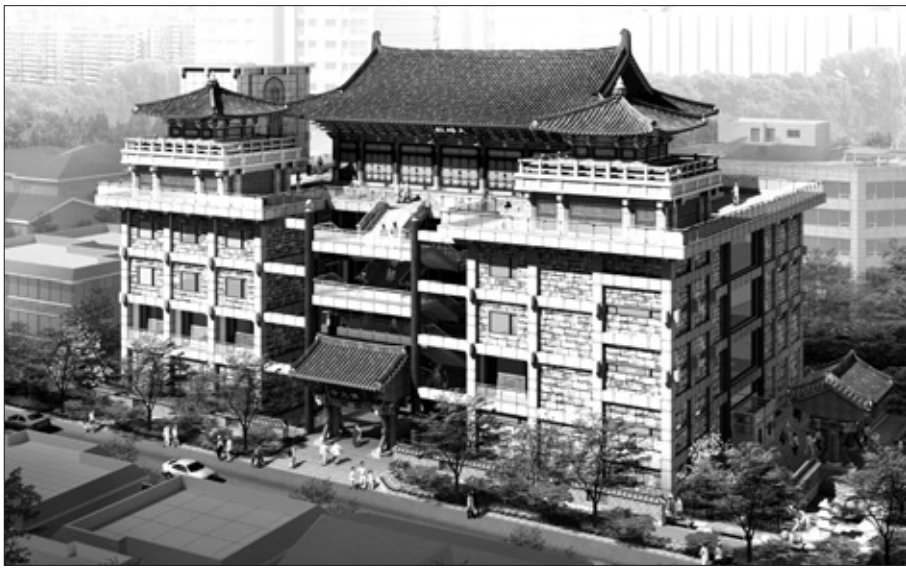


광덕 스님 사상 이을 새 보금자리 마련된다



2013년 3월 완공 예정인 불광법당의 조감도.

불광법당 도심포교 새 축으로 재건

근대 한국불교의 대중화 운동과 도심포교의 축으로 자리했던 서울 송파 불광사 불광법당(회주 지흥)가 창립 36주년을 맞아 새롭게 거듭난다. 불광사는 2월 14일

광덕 스님 12주기 추모법회와 함께 불광사 재건축 착공식을 개최 했다. 이날 재건축 착공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 전 교육원장 무비 스님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문도 대표 지정 스님은 “광덕 스님 추모

법회 때마다 법당 재건축을 얘기했는데 오늘 착공식을 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오늘 이 자리가 법주 스님의 뜻이 기억되고 발전하는 불광을 서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비 스님은 추모법문을 통해 “스님의 전법원력이 새로운 법당에서 왕성하게 꽃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중창불사 후에도 광덕 스님 사상을 더 크게 펼치는 곳, 한국불교가 나아가 할 방향을 제시하는 곳, 새로운 포교방법을 창출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덕 스님은 도심 포교당의 원조 격인 불광사 창건자로 불교 대중화의 초석을 다진 스님으로 평가되고 있다. 1950~60년대 불교정화운동에 참여한 광덕 스님은 조계종단의 기틀을 마련한 뒤 종단 행정에 적극 참여했고 1971년에는 총무원장 대행을 맡았다. 이후 1974년 불광회를 통해 불광운동으로 불리는 다양한 포교 및 교육활동에 매진했다.

1974년에는 월간 <불광>을 창간했고

1979년에는 불광출판사를 설립했다. <불광>은 30여 년간 대표 불교 교양지로 성장했으며 불광출판사는 불교경전 한글 번역작업 등과 함께 400여 권의 불교 서적을 출간했다. 불광사는 이런 광덕 스님의 불교대중화 원력의 꽃으로 1982년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건립됐다. 이후 서울에 구룡사, 능인선원 등의 대규모 도심 포교당이 속속 등장했다. 그동안 불광사는 도심포교의 축으로 불광유치원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공간이 협소해 포교활동의 불편을 겪어왔다.

2013년 3월 완공예정인 신축법당은 대지면적은 2112㎡(639평), 연면적은 9616㎡(2909평)에 지하4층, 지상5층 규모로 지어진다. 지상 4층까지는 현대식 건축으로 지상 5층은 전통 목조양식으로 지어진다. 3층과 4층에는 만불전과 선원이, 2층에는 요사채, 1층에는 중무소 및 복합공간으로 활용된다. 지하에는 지역주민을 위해 대규모 법회가 가능한 법당이 들어선다.

노덕현 기자

주간 브리핑

아름다운동행, 미숙아 가족 위한 물품후원

아름다운동행의 이사장 자승 스님이 2월 17일 동국대학교의료원 신생아중환자실을 방문해 아이들을 격려하고 직접 물품을 전달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올해 2월부터 1년간 동국대학교의료원과 함께 신생아와 미숙아, 가족을 대상으로 신생아 물품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이나은 기자

불교학 연구회, 다도와 선 워크숍

불교학 연구회(회장 분각)는 2월 12일 도감사에서 '다도와 선'을 주제로 겨울 워크숍을 개최했다. 동국대 김상현 교수가 기초연설에 나섰으며 성신여대 외래교수 신미경 박사와 여연 스님이 각각 토론에 참석했다. 천진영 기자

동국대 2011년 학위 수여식 개최

동국대학교(총장 오영교)는 2월 18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2011학년도 봄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2181명, 석사 185명, 박사 98명 등 2464명이 학위를 받았다. 한편 동국대 불교대학에서는 박사 8명과 석사 12명이 학위를 받았다. 노덕현 기자

조계사, 남양유업 연평도 어린이집 버스 지원

조계사(주지 토진)와 남양유업은 2월 1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협약식을 갖고 연평도 어린이집에 버스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조계사는 같은 날 아이티 파병군인들의 안전도 지원을 위한 전달식도 가졌다. 박기범 기자

경기종교인평화회의 출범, 세영 스님 공동대표

종교를 초월해 사회적 분쟁과 갈등 해결을 위한 경기종교인평화회의가 2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불교계에서는 여주 신복사 주지 세영 스님이 공동대표 겸 부회장으로 참여한다. 박기범 기자

영문판 불교문화 제 8호 발간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2월 1일 영문잡지 <Buddhism and Culture> 제 8호를 발간했다. 이번 제 8호에서는 종범 스님의 '팔정도'를 비롯해 서명원 서강대 신부의 '나의 화두 참선 입문기', '한국의 美 불교의 美' 등을 통해 한국불교를 소개했다. (02)719-2606 노덕현 기자

포교원, 장학금 전달 및 포교사고시 시행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2월 22일 포교원장 직무실에서 어린이·청소년포교의 핵심이 되는 지역별 거점사찰 83곳에 장학금 104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20일에는 전국8개 고사장에서 제16차 포교사고시를 시행했다. 이나은 기자

직지사 신도회 신년 교례회 및 정기총회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직지사 신도회가 신년 교례회 및 정기총회를 2월 13일 설법전에서 열었다. 특히 구제역 희생 가족 친도제가 함께 진행됐다. 이 날 행사에는 본말사 주지스님 및 소자스님, 8교구 신도회장단, 각 사암 신행회 회장단, 직지사 신행단체, 신도 약 250명이 동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한국 불교의 미래 어린이와 숲에 달려있다”

아이숲 원장연수의 성과와 의미



아이숲 원장 마경순

숲유치원은 불교와 자연 교육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했다.

아이숲 유아학교 원장 연수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놀이를 찾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발현하도록 하고, 아이 특성이나 기질을 최대한 존중하는 대안 교육을 지향했다. 숲유치원에서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도전하고 표현해 볼 수 있다. 일상에서 얻는 스트레스나 억압에서 벗어나 정보를 재구성하고 표현하고 모험하는 등 각자의 기질 대로 놀이하며 자신을 신뢰하게 된다.

아이숲 유아학교가 활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사 지도자 양성과정도 가장 시급

하다. 현재의 한국유아교육은 서구적, 기독교적 방법이다. 이제 한국적, 불교적으로 바뀔 차례다. 최근에는 서양에서조차 동양적이고 불교적인 사상, 교육 방식에 관심을 많이 보인다. 교사는 교육 과정을 진행하지 않는 대신 시간과 공간적인 면에서 많은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숲의 생태, 아동의 발달 단계, 환경과 생명존중 사상 및 안전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한다. 특히 이번 연수과정에서는 교사들에게도 명상을 통해 새로운 교육관을 일깨웠다. 기존의 방식 중 단일하고 반성할 점 없는 지 교사로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아이숲 학교는 불교환경연대가 현안사업 외에 환경교육을 통해 생명존중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환경보살 양성의 새로운 출발점이 됐다. 불교환경연대는 수경 스님 은적 이후 집체기를 맞고 있으나 2월에 정기총회를 계기로 새롭게 시작할 계획이다. 이론과 실습과정 148시간을 이수하면 사찰림 협력 숲유치원 활동 지원, 협력 유치원 및 사찰 관련 생태 활동을 지원받게 된다. 3~7월 동국대 사회교육원에서 매주 토요일 숲유아학교 지도자 양성 과정을 실시하고, 4월에는 독일·일본의 숲 유치원 연

수를 통해 한국적 숲유아 학교를 정착하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더 나아가 학부교육과 숲 명상학교를 통한 숲치유, 태교숲, 노인숲, 아토피 학교 등 숲과 관련된 여러 과정을 계획하고 있다.

아이숲은 불교를 가르치려는 이제까지의 포교와는 달라져야 한다. 체험과 숲에 그 해답이 있다. 불교가 가진 최대의 장점은 숲이다. 불교환경연대 아이숲 학교는 시대의 요청이었다.

아직은 인력 등 여러 면에서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종단과 함께 숲 관련 콘텐츠 연구 및 인력 양성을 실현해 간다면 한국 불교의 미래는 밝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찾아야 한다. 종단의 지원과 동국대의 연구 기능이 적절히 결합해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최근 사찰들은 운영이 어렵다고들 말한다. 아이숲은 사찰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숲유아 학교는 건물이 필요 없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 비가 오나 눈이오나 있는 그대로 자연 속에서 아이들은 함께한다. 어린이들은 숲에서 스스로 경험하고 느끼고 배운다. 마음만 낸다면 충분히 각 사찰

에서 시도 해 볼 수 있다.

현재 정계사, 화계사, 흥국사, 용화사 등에서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시범사찰을 시작으로 교사 양성 견학 실습장으로 만들고, 성공적인 운영으로 타 사찰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개설 희망 사찰엔 교사를 파견해서 자체 운영 때까지 도움을 줄 계획이다. 숲은 우리의 미래다. 그리고 아이들도 우리의 미래다. 아이숲에서 한국의 미래, 불교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찾고 싶다.

불교환경연대 부설 숲명상·숲유아학교 연구소는 숲유아학교 전문 지도자 양성과정을 실시한다. 대상은 유아교육 관련 교사를 비롯한 환경과 교육에 관심있는 자로 선착순 40명에 한해 3월 5일~7월 31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동국대 사회교육원과 정계사 사찰림에서 진행한다. 접수 희망자는 동국대 사회교육원 홈페이지(<http://edu.life.dongguk.edu>)와 전화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02)734-1915

대불충 성명서

조계종의 5대 결사 추진을 환영한다

지난 1월 26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국 불교가 처한 현실과 한계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고, 자정과 쇠신을 강화해 사회적 신뢰를 받은 국민 종교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다.

5대결사는 수행, 문화, 생명, 나눔, 평화 결사로서 구체적 실행을 위해 불교계의 전체의 지혜를 모아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내 반응은 원로회의와 종책모임 그리고 실천불교전국승가회등에서 대체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실천에 기대를 하고 있는것 같다.

우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우리나라 불교 대표종단이 내부 반성으로 시작하여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국민종교로 거듭 나겠다고 밝힌데 대하여 진정한 불교 발전을 위해 몇 가지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5대결사를 내부반성으로 시작한 열린자세에 박수를 보낸다.

둘째, 그러나 금번 5대결사는 조계종내 내재하고 있는 근본문제에 접근하지 못한 아쉬움을 지울수 없다.

셋째, 조계종의 근본 문제는 성직자들에게 있을수없는 선거제도로 인한 승가의 타락과 중앙통제 재정체계 미 확립으로 인한 승가의 부패 이다.

넷째, 범불교적 동맹을 호소하는 것은 조계종의 독선과 타종단에 대한 결례로 보일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조계종은 불교계를 대표하는 종단으로서 출가승이 금기시 해야할 명예 추구, 권력과 돈에 대한 탐닉, 근본 계율의 붕괴 등의 현실에 대한 솔직하고 환골탈퇴 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바뀌 말하면 주지, 총무원장, 종회의원등은 참다운 출가승이면 각종 악의 근원인 선거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고 종단과 사회를 위해 봉사해달라는 간곡한 원로들의 추천에 따라 몇 번 고사 끝에 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종단 자체 발전은 물론 국가와 사회, 그리고 인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중앙통제 재정체계를 갖추지 못한다면 종단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사실상 공염불에 그친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2011년(불기2555년) 2월 18일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전화 : 02)2265-0570 팩스 : 02)2265-0571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1-401246 대불충